

# 開港期「인플레이션」과 農業恐慌機構

金 俊 輔\*

## 1. 開港의 劃期性和 土着經濟

韓國資本主義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1876年の 開港에 앞서서 일찌기 自律的인 實을 트고 있었다. 李朝封建體制가 그와 더불어 쉽게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前期的 商業資本의 활발한 擡頭를 보게 되었고 그에 따른 都市의 形成, 兩班階級의 解弛, 「매뉴팩처」의 胚胎, 土地의 貨幣化등 일련의 近代化過程이 舊殼을 뚫고 서서히 進行하고 있었던 것이 開港前後의 事實이다.

그러면 開港은 韓國資本主義의 成立에 관하여 아무런 劃期的 意味를 갖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開港以前에 「近代的 資本主義」의 基盤形成을 볼 수 없다고 斷定하지 않지만 적어도 開港이 몰고 온 帝國主義의 「暴風雨」를 輕視할 수 없다. 그것은 말하자면 「資本없는 資本主義」로서의 日本軍國主義의 侵入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의 暴力的 威壓下에 世界市場의 擴大를 이 땅에 보게 된 까닭이다.

지금, 「資本없는 資本主義」라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단순한 前期的 收奪이나 高利貸의 活動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近代的 金融資本으로서의 銀行의 侵入도 있었거니와 그것을 背景으로 한 商業資本의 排他的 活動 역시 처음부터 불만한 점이 뚜렷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있어서도 아직 이 땅에 産業資本의 積極적 導入은 없었고 商業資本이라 하더라도 그 量的 水準에 관한 限, 制限된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經濟는 政治的 浸透力에 의하여 相對的으로 躊躇되는 과정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金融資本만 하더라도 開港이 되자마자 日本의 第一銀行은 당장 釜山에 上陸(1878年)하였고 이에 꼬리를 물고 日本內 數個銀行의 進出을 보이었다. 더구나 日本貨幣의 國內通用이 同時에 開始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를 背景으로 삼은 日本商人에 의한 世界的 交易이 급격한 擴大를 보게 劃期性은 당장 크게 눈에 띌 사실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有名한 日本第一銀行의 進出이야말로 日本帝國主義의 起動力이었다고 보아서 무방하다. 그것은 단순히 日本人 商業資本의 支援者이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商業的 實務에 從事하였고, 점차 이 나라 國庫를 管理하고 代行하기도 하였던 侵略的 機構이다. 그리하여 그는 처음부터 日本貨幣의 本源的 供給者인 동시에 韓錢의 賣買者이었으며, 특별히 米穀과 產金의 買入者로서 君臨하였다. 그 가운데 그는 關稅의 代理收納者이기도 하였거니와 韓末의 貨幣整理者로서 이 땅의 財政·金融을 料理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사실, 整理에 관련하여 第一銀行에 의한 銀行券(第一銀行券)의 無制限的 發行은 바로 土着經濟를 「인플레이션」과 農業恐慌의 深淵에 이끌어 넣은 直接 動因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새삼 주목된다. 아니나 다를까, 日本의 獨占資本은 이에 便乘하여 이 땅의 都市

\* 高麗大 政經大 教授

와 農村을 席捲하기 시작하였고 封建國權의 危機는 그와 더불어 激成하여 韓半島의 運命을 決定的으로 斷絶하고 만 것이 그간의 經緯이다.

그러나 우리는 開港의 劃期性을 위와 같은 日本資本의 支配의 勢力條件에만 찾아서 충분히 할 수 없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誘發되고, 形成된 土着經濟社會의 被支配의 局面을 아울러 보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普遍的인 의미를 갖는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인플레이션」과 農業恐慌이라 할 수 있다. 실로 이들 要因이야말로 본래 資本主義의 生理의 病弊를 代表하는 가장 심각한 社會的 屬性이기도 하다. 알고보면 「인플레이션」과 農業恐慌인즉 각기 韓國資本主義를 貫切한 暴壓의 矛盾의 條件이었을 뿐 아니라 그들은 흔히 相互連繫하여 時代的 危機를 形成하여 왔다. 그리하여 그들 勢力은 土着經濟로 하여금 歷史的 新段階를 구획할만한 起動的 契機로서 機能하였다는 것이 韓國資本主義史上 立證된 經歷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인플레이션」과 農業恐慌을 떠나서 韓國資本主義를 體系의으로 파악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다만 그 가운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優勢한 比重으로써 土着經濟를 威壓함을 볼 수 있고 또는 이와 반면에 오히려 農業恐慌이 劃期性을 具體化할 만큼 뚜렷이 浮刻됨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실로 韓國資本主義 100년의 歷史를 達觀할 때 그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의 擴大再生産의 進行過程이었으며, 農業恐慌의 慢性的 또는 急性的 深化과 跋扈의 歷史이었다. 그 가운데 支配資本의 蓄積은 進행되었고, 이른바 韓半島의 開拓과 經濟의 成長은 이루어졌으나 그로 因한 被壓階層의 困苦는 막을 길이 없었다. 흔히 凶年이나 戰災를 이에 관련하여 크게 들기도 하지만 그들 自身이 결코 문제의 根本的 動因이 아니라 함은 周知의 原理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農業恐慌의 歷史의 意味는 그 가운데 오히려 뚜렷한 것이며, 더욱 이들 兩者는 반드시 對蹠的이 아니라 兩者 連結하거나 또는 相互補完하여 相乘的 機能을 다하였다. 이 점에서 그들이 보여준 韓國의 特性은 如實한 面目이다. 사실, 그동안 全體의 生産基盤을 小農樣式에 두고 있었던 韓國資本主義에 있어서 都市의 「인플레이션」과 農村의 恐慌이 併存하는 局面은 결코 新奇한 것이 아니었다. 小農恐慌의 慢性的 特性을 생각할 때 그것은 오히려 普遍의 事象이다. 그도 따져보면 「인플레이션」과 農業恐慌이 언제나 또는 눈에 띄게 相乘機能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나, 이들 兩者의 土着大衆에 대한 破壞的 機能은 흔히 相互 因果的이 아니면 併行的인 가운데 뚜렷한 共通性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이들 「인플레이션」이나 農業恐慌은 그 極點에 이르게 되자 靑景 社會的 危機를 激成하는 것이니 東學革命이나 義兵運動은 바로 開港期에 있어서 뚜렷이 나타난 그러한 구체적 動態라 할 수 있는 例이다. 韓國資本主義 百年의 歷史는 실로 위와 같은 危機를 거듭 거쳐서 몇 段階의 新時代를 區劃하여 왔던 것이며, 그에 따라서 무엇보다 封建地代의 內面的 變質을 보기도 하였다<sup>1)</sup>. 3.1運動이나 1930年代初의 大恐慌 역시 바로 그 후의 이러한 起動的 契機들이다. 여기에 우리는 開港 이후 「인플레이션」과 農業恐慌을 同時的 機構의으로 볼만한 理由를 뚜렷이 갖게 되었다. 이점 問題를 가장 보편적 立場에서 客觀的으로 다루어 보고자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基本的 命題이다.

그렇다면 일찌기 듣는 바 開港의 劃期性 역시 처음부터 外來資本의 浸透行跡이나 世界市場의 擴大運動등 그 支配條件에 限定될 수 없고, 적어도 「인플레이션」과 農業恐慌의 被支配條件에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니 이들 要因이야말로 韓國資本主義史를 一貫하여 體系化하는데 當장 基底的으로 要求되는 第一次의 課題이다. 다만 그럼에 있

1) 좀더 자세히는 拙著 「韓國資本主義史研究」Ⅱ, 1974참조

어서도 우리는 開港期「인플레이션」을 指目하는 전통적 諸見解 가운데 農業恐慌의 局面을 同時的으로 깊이 물어보지 않는 傾向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 역시 資本主義經濟의 범주를 떠나 있지 않는 것이나, 요는 그들이 土着經濟의 被支配의 特性을 철저히 보지 못한 所見임은 물론이다.

사실, 開港直後의 土着經濟를 皮相的으로 觀察한다면 때는 아직 優勢한 封建的 自給體制의 時代이었던만큼 「인플레이션」이나 農業恐慌의 近代的 發生이 排除된 것 같기도 하였다. 사실 적어도 資本化過程이 매우 未及하여 農業恐慌의 正常的 波及이 不可能하였으리라 고 보는 見解에 접하기도 하는 實情이다. 이 점, 다음 小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자하는 本論의 重要課題이거니와 結論의으로 말하여 우리는 近代的 「인플레이션」의 展開를 是認하는 限에 있어서 적어도 小農恐慌의 獨立的 또는 重疊의 發生을 排除할 수 없다. 全般的 流通經濟가 優勢한 資本主義의 支配力에 依存하는 小農社會에 있어서 小農 그것이 비록 前期의 屬性을 保有한다 하더라도 恐慌의 渦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恐慌論一般이 오히려 일찌기 提示한 바 있는 命題인 까닭이다.

## 2. 開港期「인플레이션」의 特性

開港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日本資本의 勢力的 浸透와 그것을 통한 世界市場에의 連結을 韓半島에 가져왔으므로 당연히 土着經濟의 貨幣化를 촉구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당장 「인플레이션」으로 進展되리라는 것은 당연한 귀추이다. 사실, 開港과 더불어 海外交易은 急進的 膨脹을 보이었고, (아래表 참조) 그 가운데 物價는 激騰하였으며, 通貨量 또한 急増하였음이 歷然하다. 高宗 17年(1880年)에 이미 「物價倍蓰 浩費尤多 轉至蕩敗之境」<sup>1)</sup>이라는 悲鳴을 듣게 되었으며, 그 밖에

「朝鮮에 있어서 모든 物價는 開港以來로 그 周圍事情의 그것에 비등하게 되는 傾向이 있는데 그것은 生活必需品이 騰貴하는 結果를 가져오고, 특히 食糧價格의 昂騰을 가져왔다」<sup>2)</sup>

는 外國人의 報告에 접하는 實情이다.

開港前後의 貿易動態

(單位: 圓)

| 年 次      | 輸 入 額     | 輸 出 額     | 總 額       | 指 數     |
|----------|-----------|-----------|-----------|---------|
| 1875     | 68,930    | 59,787    | 128,717   | 100.0   |
| 1876     | 81,374    | 82,572    | 163,846   | 127.3   |
| { 1877.7 | 228,554   | 119,538   | 348,092   | 270.4   |
| { 1878.6 |           |           |           |         |
| 1879     | 566,953   | 677,061   | 1,244,814 | 967.1   |
| 1880     | 978,013   | 1,373,671 | 2,351,684 | 1,827.0 |
| 1881     | 1,944,731 | 1,882,657 | 3,827,388 | 2,973.5 |
| 1882.1   |           |           |           |         |
| 1882.6   | 742,562   | 897,225   | 1,639,787 | 1,273.9 |

資料: 露西亞大藏省, 「韓國誌」(日譯, 1905), 112~113面

1) 「承政院日記」. 高宗 17年 7月 21日

2) G.N. Carzon, Problems of the Far East, 1894 p.p. 187~9.

#### 4 經濟學研究

더구나 1890年을 고비로 한 米穀의 激化된 對日輸出과 더불어 物價의 狂騰을 보았음이 주목된다. 즉,

「今之物價十年前 或有過十倍者 或有過百倍者 名雖當五(戰) 實不及前日葉錢半文之用」<sup>1)</sup> 이라든가, 同年에 米穀 1擔 120兩하던 것이 1892년에는 350兩으로 뛰었다는 記錄<sup>2)</sup>은 그 표시이다. 물론 物價高의 경향 그것은 開港以前에도 없지 않았으며, 開港後의 物價動態 또한 반드시 一律의인 것은 아니다. 穀價의 季節的 變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韓錢(葉錢)의 日貨에 대한 時勢 또한 時期와 地域에 따라서 큰 變動을 보인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밖에 開港前 大院君治下의 當百錢「인플레이션」은 너무나 유명하거니와 그에 併行된 清錢의 濫用 또한 불만하며, 더욱 開港直前年의 事例로서

「今年이 豐年이면서도 穀物이 貴한 것은 潛商輩가 穀物로 外國物貨를 換買하는 까닭이므로 무릇 異國貨物은 일체 通禁한 것」<sup>3)</sup>

을 요구한 文面을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開港前에 볼 수 있었던 사실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開港後의 「인플레이션」이 보여준 特徵의 條件을 또한 결코 看過할 수 없다. 後者의 「인플레이션」이 적어도 前者의 그것에 관한 事態의 단순한 延長이 아니라 開港과 더불어 새로운 衝擊을 가한 危機의 性格이라는데 前後 發展性은 확인되는 관계이다.

그 밖에 開港後의 「인플레이션」이 앞에서 본 開港이 가져온 土着經濟의 支配條件과 被支配條件을 그대로 反映하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단적으로 말하여 그것은 바로 日本帝國主義의 背景과 「世界市場의 暴風雨」란 外來의 支配勢力에 그 根源의 動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그것이 農恐慌業과 連結된 점에서 近代의 特色을 한결을 뚜렷이 浮刻한다. 그것은 大院君治下의 當百錢「인플레이션」이나 그 밖의 前期의 「인플레이션」이 보여준 粗貨 따라서 發行이나 凶作과 같은 偶然的, 一時的인 것이 아니라 資本主義經濟의 外來의 浸透와 관련된 近代經濟와 因果性을 갖는 것이라는 것, 더구나 前者와 같이 限定된 地域이나 特殊한 被支配層의 前期의 負擔(地代負擔)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全體的 經濟機構를 통하여 大衆에 대한 壓力의 條件이 되고 있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支配資本에 대한 蓄積의 動因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처음부터 特徵의 屬性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開港後의 「인플레이션」을 近代的인 그것이라 하여 前後 구별하는 것이 무방하다. 더욱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과 相互 連結되어 있다는 점에서 開港後의 農恐慌이 뜻하는 近代性 또한 한결을 뚜렷이 反證되는 관계이다.

물론 開港期의 近代의 「인플레이션」이라 하더라도 당장 土着經濟의 前期의 後進性을 떠나서 그대로 볼 수는 없다. 적어도 農村社會의 封建的 支配體制와 自給의 生活樣式은 近代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實質的 制約性을 가져오는 基礎要因이다. 그러므로 이때에 「인플레이션」이라 하여도 그것은 일견 開港地域이나 都市社會에 局限된 문제일 것 같기도 하나 眞相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바야흐로 商品化率이 低劣하고, 自給體制가 優勢한 經濟社會임에 틀림이 없으나 支配資本의 浸透力은 매우 強勦한 것이어서 全體的 土着經濟의 商品化를 各方面에서 強要하는 동시에 市場經濟의 擴大를 內面的으로 補完하는 점 또한 強한 까닭이다.

때마침 開港期 「인플레이션」이 農恐慌을 促進하는 特徵의 局面은 불만 하거니와 그것

1) 金允植: 「雲養集」, 第七卷, 第二・錢幣論(1890年代初)

2) Consular Reports, Foreign Office, Annual Series, No. 1088, 1894 (British)

3) 「承政院日記」, 高宗 12年(1895年) 12月 1日

의 相乘效果가 封建의 生産體制의 全體의 危機와 直結된 機構의 動因性에 관하여는 지금 각별히 주목한다. 우선 貨幣化過程이 封建地主나 地方吏僚를 刺戟하여 生産農民의 收奪을 強化한다든지 外來資本의 浸透力이 銳利化함으로써 東學革命과 같은 巨大한 農民運動을 일으킨 動機는 고사하고, 農民의 不等價의 「세례」現象만도 「인플레이션」過程下에 크게 露出됨을 보인 局面이다.

### 3. 開港期「인플레이션」의 主導原因

開港의 世界史的 意味가 밝혀지고, 開港期「인플레이션」의 特性이나 그와 관련된 農業恐慌의 連結性이 인정될 때 韓半島開港史의 全局面은 비로써 우리 앞에 正體를 나타낸다. 開港期「인플레이션」의 主導의 原因 또한 여기에 客觀的 根源의으로 밝혀질 것이 기대되는 展望이다.

그러면 開港期「인플레이션」의 主導의 原因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문제에 臨하여 첫째로 日本資本에 의한 貿易의 급격한 膨脹過程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開港前後의 貿易統計에 있어서 輸出額의 大部分은 곧 米穀과 大豆인 것인 바, 그들 單價의 騰貴를 고려에 넣고 본다 하더라도 買穀의 量的 擴大過程은 꾸준한 趨勢이다. 특히 1880年代의 上昇過程을 거쳐서 1890년에 이르러 특히 米穀의 對日輸出이 急増된 사실은 놀랄만 하거니와 (다음表참조) 그 후 다소의 起伏을 보인 가운데 買穀量의 대체적 增勢는 바로 「인플레이션」과 農業恐慌의 進行相을 반영한다. 특히 對日買穀 그것이 반드시 國內 食糧의 過不足을 깊이 묻지 않게 된 사정에 있어서 그러한 進行은 당연한 結論이다.

원래 前世紀中葉까지 日本의 「말더스」의 食糧問題는 심각한 바 있었다. 더구나 日本經濟의 初期的 發展은 계속 食糧需要의 급격한 增大를 나타냈다. 그리하여 日本은 1880年代에 이르기까지 產米의 輸出開放을 본 가운데 있어서도 韓國米를 비롯한 外米의 導入을 결코 中斷하지는 아니하였다. 그것이 1890년에 이르자 170萬石을 넘는 記錄의 輸入超過米를 보게 되고 이후 韓國產米에 대한 依存度는 높아져 간 것이 틀림이 없는 趨勢이다. 때마침 韓半島 역시 그 食糧事情이 점차 餘裕를 갖지 못하게 된 과정임에 있어서 문제의 심각화는 면할 수 없었다. 이 점 우선 國內米價의 昂騰으로 나타났으나 이를테면 「日本에 있어서 穀價의 昂騰은 곧 朝鮮市場에 영향을 미쳐서 米·豆의 輸出을 크게 늘리게 하고, 이것은 通貨量을 増大시켰으며, 또한 모든 必需品의 價格을 올렸다」<sup>1)</sup>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糧穀의 價格이 全國의으로 대단히 昂騰하여……2年前(1890年)의 米價는 1擔에 120兩이던 것이 지금(1892年)은 350兩으로, 貨幣價値는 下落되었다」<sup>2)</sup>는 前掲의 外國文獻에 접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日本資本에 의한 初期買穀은 그것이 반드시 正常的 商去來의 所産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深刻性은 加重된다. 그것인즉 곧 生産農民에 대한 暴力的 威壓이 아니라면 高利貸의 窮迫에 便乘된 結果임이 一般이다. 따라서 土着民衆의 食糧事情은 고사하고, 「인플레이션」이 進行된 가운데 農民의 不等價의 損失은 招來되었다. 그것은 필경 農業恐慌을 誘引하는 條件이던 것이므로 開港期의 交易關係를 다룬 「韓國誌」 역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1) 開港直後の 商品別 貿易統計資料는 구해 보기 어렵다.

2) H.B. Hulbert; "Korea Review" Vol.1 I. No. I, 1901  
Consular Reports; (前提)

「米穀의 輸出量은 國內의 豊凶에 관계될 뿐 아니라, 主要需要者인 日本의 需要如何에 의한다. 韓國에 있어서는 米穀收買資金의 貸與價行에 의하여 交易의 米穀은 凶作이라 할지라도 日本人의 손에 들어가 住民의 損失에 돌아간다. 云云」<sup>1)</sup>

하물며 이 때에 貿穀을 막기 위한 防穀令이 韓末政府나 地方官吏에 의하여 公布됨을 보게 됨에 이르러 生産農民의 立場이 어떠한지라는 것은 대체로 自明하다. 日本資本의 優勢下에 防穀의 實效를 견우기에 어려웠을 뿐 아니라 결과는 흔히 生産農民의 損失을 加重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실로

「防穀令은 그 目的인 米價 그 밖의 農産物價의 下落은 이를 볼 수 없고, 헛되히 農民의 損失에 의하여 官吏의 私腹을 肥하게 할 뿐이다」<sup>2)</sup>

하였음은 바로 目擊者의 記錄인 「韓國誌」의 論評이다.

그러나 알고보면 開港期 「인플레이션」이 그 主導의 起動效果를 日本資本의 貿穀에만 두었다고 볼 수 없다. 日本資本에 의한 韓錢의 賣買活動 또한 이에 못지않게 「인플레이션」의 貨幣의 側面을 構築한 큰 動因의 하나이다.

사실 韓日條交條約은 對日貿穀을 公認하는 동시에 日本貨幣의 國內通用을 許容한 점에서 半植民地의 開港임을 가장 구체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다 같이 이 땅에 「인플레이션」을 約束하는 條件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특히 日貨通用으로 말하면 당장 韓錢(葉錢)과 混用되고, 韓錢을 賣買함으로써 國內貨幣價値를 實質以上으로 低落시킬 수 있는 本性을 갖게 하였다. 그리하여 韓末의 財政窮乏으로 말미암은 韓錢素材의 低質化는 「구레삼」의 法則을 露骨化시키고, 「인플레이션」에 부채질을 더한 결과로 되었다. 따라서 總體의 으로 1880年代의 當五錢이나 1890年~1900年代의 白銅貨의 交換價値低落이 當時의 日本貨幣와의 接觸에 의한 反射의 效果라 함은 대체로 틀림없는 命題이다.

開港과 더불어 自國貨幣를 通用한 日本資本은 韓錢賣買을 恣行하여 韓錢時勢의 利差를 取得할 뿐 아니라 韓錢을 巧妙하게 利用함으로써 또한 去來上의 利得을 취득하였다. 더구나 그들은

「韓錢時勢가 低落하리라고 豫想될 때는 現金 또는 日本貨幣를 支拂에 쓰지 않고 一時의 救急을 위하여 韓錢어음을 發行해 놓은 다음 後日에 韓錢(價値)이 低落하면 現金을 사서 어음支拂에 供한다」<sup>3)</sup>

는 것이니 여기에 韓錢어음의 發行으로 通貨量은 그만큼 增加되고, 그 가운데 그들의 利得은 늘어난다. 요컨대 그들은 粗惡한 韓錢(當五錢, 白銅貨등)의 鑄行을 기다려서 低廉한 市價로 이를 買占하되 名目價 그대로 그를 利用하거나 粗貨로써 良貨를 購入搬出하는 方途를 취하였던 例이다.

그런데 開港直後 市場經濟는 급속히 擴大되었으므로 日本貨幣의 導入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레삼」의 法則과 더불어 韓錢의 量的 不足은 감출 길이 없었다. 당장 韓錢을 多量으로 鑄造할만한 能力은 當時의 韓國政府에 있어서 保有되지 않았던 처지이다. 여기에 日本貨幣에 대한 需要는 높아가고 그에 대한 價値는 落勢를 면할 수 없었다. 따라서 開港初의 韓錢需要期를 除外하고 韓錢의 凋落은 계속된 셈이다. 다만 開港初의 葉錢市勢 그것 역시 主로 銅價의 昂騰과 그에 대한 需要增加에 基因한 一時의 現象에 불과하고 그것이 一般物價의 低落을 뜻하는 狀況은 아니었다. 穀價를 비롯한 一般物價의 一時의 起伏이나 季節的

1) 「韓國誌」, 144面

2) 「韓國誌」, 130面

3) 岡 庸一: 「最新韓國事情」, 1904, 287面

騰落은 不可避한 것이었으나 그도 開港期를 통하여 대체로 上昇을 거듭하였던 것이 틀림 없는 實態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錢의 變動時勢를 速知할 수 있는 日本人의 立場에 있어서 더구나 그것을 鑄造함에 요구된 原料(地銅)을 거의 獨立의으로 供給하고 있었던 處地에 土着經濟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條件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그들 惡德商人이 敢行한 韓貨偽造의 行悖는 그것의 極端의 事例일 뿐이다. 사실 널리 알려진 것만도 東學革命後의 白銅貨偽造는 日本人에 의하여 公公然히 行해졌던 것이니 仁川港과 같은 開港에는 거의 韓貨의 全部가 偽造貨幣였다는 정도이었다. 더욱 當時의 日本人 스스로

「昨今 大阪地方의 製銅會社 가운데 白銅貨를 鑄造하여 完製品으로서 1個 1錢 5厘 내지 2錢의 價格으로 대저 密輸入을 試圖하는 者가 있으며, 이제 仁川 그 밖에 各地商人은 거의 이일에 關與치 않는 者가 없는 형편이다」<sup>1)</sup>

하였다. 따라서 지금

「어떠한 地方에 有力者가 있어서 韓錢의 買占을 할 때는 市價를 操縱함으로써 暴利를 取得하기에 어렵지 않다」<sup>2)</sup>

는 表現은 우리에게 너무나 단순하다. 그들은 곧 韓錢을 偽造할 수 있었던 반면에, 日本政府의 規制力을 받지 않고서 偽貨「인플레이션」을 制禦할 길은 사실상 이 땅에 없었던 까닭이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傳統的 內外開港論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극히 限定된 事件으로서 다루어져 있지 않을진대 그 原因을 王室에 의한 粗貨의 濫發에 돌리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다. 그들에 있어서 開港前後의 「인플레이션」이 명확히 判別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開港後의 當五錢의 濫發이나 白銅貨의 鑄行이 곧 「인플레이션」의 根源인양 判定하고 마는 예는 너무나 많은 실정이다. 言必稱, 財政의 紊亂, 官吏의 腐敗, 王室의 奢侈를 들고, 또는 凶作만이 곧 穀價昂騰, 物價高의 原因인양 주장하는 見解를 허다하게 보는 것이나 그것이 歷史의 진실한 背景을 보지 못한 皮相的 所見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필경 그가 開港期「인플레이션」의 特性이나 그 根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 아니라 開港의 劃期性 또한 認識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農業恐慌의 形成條件과 같은 것을 당장 묻지 못한 短見임은 물론이다.

지금 開港期 日本貨幣의 國內通用量만을 구태여 묻는다 하여도 그 水準은 결코 輕視할 수 없다. 開港初期와 그 後期에 따라서 큰 差異를 보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開港地나 主要都市에 관한 限, 거의 韓錢을 凌駕하였음이 분명하다. 그것은 일찌기 東學革命 直前의 葉錢의 流通量이 대략 800~1,000萬圓으로 推算된데 대하여 그 直後(1897年)의 日本人側 調査에 의한 日本貨幣의 그것이 銀貨만도 300~350萬圓에 달해 있었다는 정도에서<sup>3)</sup> 능히 알만하다. 따라서 日本人發行의 韓錢어음을 넣고보면 더욱 後者의 量的 水準은 올라갈 것이 분명하며, 더구나 1900年代初 日本의 第一銀行券의 無制限 發行段階에 들어서고 보면 日本貨幣量의 支配性은 뚜렷해지는 實態이다.

하물며 全體의 경향에 있어서 日本貨幣의 流通速度가 빠르는데 대한 韓錢의 退藏性을 아울러 보게 될 때 위의 量的 評價는 훨씬 強調된다. 이점, 開港期의 進行과 더불어 각별히 주목되는 當면한 문제의 條件이다.

1) 「銀行通信錄」, 1902年 6月號 第34卷, 205面

2) 岡庸一; 「前掲書」 393面

3) 「日本人 商業會議所調査」 四方博, 「朝鮮に於ける近代資本主義の 成立過程」, (朝鮮社會經濟史研究) 京城帝大法文學會刊, 1933, 48面, 71面.

그러나 開港期「인플레이션」과 日本資本의 支配性を 살펴볼에 있어서 더욱 우리는 後者에 의한 계속된 産金活動을 看過할 수 없다. 이 점, 확실히 開港期の 特異한 「인플레이션」의 附加의 原因의 큰 種目이다.

원래 國家의 産金活動은 貨幣의 數量을 늘리는 動因이라 하겠으나, 그 自體 언제나 「인플레이션」의 條件이라 할 수는 없다. 그것을 近代各國의 交易面에서 본다면 그 自體 오히려 國家의 對外支拂能力을 높이고, 放慢한 紙幣나 銀行券의 信用力을 保障하는 槓桿이 되는 점에 있어서 反「인플레이션」의 機能을 분명히 갖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물론 等價의 交換이 前提로 되어야 하겠고, 開港期の 韓半島에 있어서와 같이 外來資本에 의한 半收奪의 買占行動과 같은 事例을 豫想하고 있지 않다. 後者의 경우, 결과는 오히려 内外貨幣의 國內流通量을 增加시킬 것이며, 自主의 支拂能力의 減退를 가져옴으로써 「인플레이션」의 根源을 助成하게 될 뿐인 까닭이다.

産金の 收買搬出은 日本資本의 所行만이 아니라 淸國 또한 開港以前부터 産金の 買入에 血眼이 되어 있었다. 다만 開港이 되자마자 日本資本은 이에 優位의 拍車를 加한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니 특별히 第一銀行의 地金買上은 그 主業務의 하나로서 불만하다. 그리하여 결과는 淸日戰爭 直後 日本의 金本位制의 樹立<sup>1)</sup>에 크게 寄與하였음은 주지한 바와 같고, 다시 韓錢의 相對的 價値低落과 金本位制度 定立을 沮害하는 反射的 原因이 되고 만 점, 또한 잊지 못할 문제가 要因이다.

#### 4. 開港期 農業恐慌의 危機의 展開

우리는 앞에서 開港期の 農業恐慌을 必然視하여 「인플레이션」과의 連結性を 어느 정도 살펴 보았으나 무릇 韓國農業恐慌을 客觀的으로 定立함에는 더욱 先行的으로 요구되는 몇 가지 認識의 條件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들을 구대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1) 첫째로 多岐한 學說的 恐慌이나 農業恐慌의 概念握把, (2) 얻어진 理論 그것으로 開港期の 農業恐慌과 어떻게 對決한 것인가 하는 문제, 나아가서 (3)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農業恐慌을 구체적으로 實證化하는 문제, 즉, 農業恐慌의 成立이 概念的으로 認定된다 하더라도 그것의 實證資料를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 등, 우선 우리는 오늘날 經濟學的 概念에 있어서 恐慌과 같이 異見을 많이 보고 있는 것도 드물다 하겠다. 특별히 農業恐慌에 이르러서는 工業恐慌과도 관련하여 樣相과 原因이 구구한 論議를 자아낼 만큼 복잡하다. 農業恐慌은 工業恐慌과 반드시 併行하든가, 그렇지 않다든가, 또는 工業恐慌은 資本主義一般의 所産인데 대하여 農業恐慌은 獨占資本主義의 발전된 段階를 요구하든가 하는 所見을 많이 보는 예이다. 그 가운데는 農業恐慌의 原因의 모름지기 地代(高率地代)의 固着性에 놓여 있다는 理論도 有力하거나 獨占資本의 強壓에 緣由한다는 주장 또한 당연히 설 수 있다. 그 밖에 一般(工業)恐慌論의 形式的 延長을 꾀하는 方法論 역시 지목되는 概念的 認識의 類型이며, 물론 古典의 理論을 일일이 찾는다면 限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세삼 歷史的 恐慌論이나 農業恐慌論을 들어서 是非曲折을 가리는 여유를 갖고 있지 않다. 사실 그 중 하나의 體系를 세워서 概念을 定立한다 하더라도 실로 尠大한 成果를 보기에 충분한 내용의 課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체로 여기에 通說의인 것으로 認定되는 그것의 概念을 취하되 開港期の 歷史의 背景을 충분히 고려하되 구체적으로 解答하는 方法을 취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 있어서도 이 때에 日本軍國主義의

1) 日本은 1897년에 金貨本位制를 樹立하였다.



侵入이나「世界市場의 暴風」에 對應한 封建的 土着經濟의 沈滯된 生産樣式등은 무엇보다 우리의 理論形成上 중요한 要素的 對象이다. 그렇다면 필경 우리에게 주어진 基本前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i) 恐慌이나 農業恐慌은 資本主義 經濟機構의 固有한 產物이며, 相對的 生産過剩을 土臺로 한 暴發의 景氣下落의 局面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따라서 穀價나 物價의 暴落, 生産의 萎縮, 失業沙汰, 所得의 減縮, 金融의 逼迫등이 우선 눈에 띄는 現象이라는 것.

(ii) 그러나 恐慌이나 農業恐慌을 被支配對象으로 하여금 만드시 資本主義 生産樣式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前期의 生産樣式(例: 小農)에 있어서도 一定한 條件下에 恐慌은 충분히 發現될 수 있다는 것.

(iii) 農業恐慌은 工業(恐慌)과 併行하는 것이 常例이지만 獨立的으로 勃發할 수 있다는 것. 다만 그것은 언제나 資本主義의 市場經濟를 떠나서 獨立的으로 生起는 것이 아니라는 것.

(iv) 恐慌이나 農業恐慌은「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貨幣經濟의 발전이 生成基盤으로서 요구되고 있다는 것, 自給的 經濟體制下에서 그것은 決定的으로 制約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이 때에 恐慌의 強度는 만드시 生産農民의 商品經濟(商品化率)만에 依存할 수 없다는 것. 實物小作制下에 있어서 例컨대 地主의 小作米 放賣는 역시 小農의 恐慌과 直結될 수 있는 條件이라는 것.

(v) 農業恐慌은 農業生産의 特有性和 生産農民의 經濟社會的 地位에 對應하여 慢性的 本性을 갖고 있다. 특별히 小農恐慌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 따라서 사실상 그것은 工業恐慌과 併行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

(vi) 農產物의 需要가 많고 農村勞動力의 都市産業에 대한 吸收運動이 旺盛한 産業資本主義段階에 있어서 農業恐慌의 發生可能性이 沮止된다는 것, 그러나 이 점은 地域에 따라서 매우 流動的이라는 것.

(vii) 農業恐慌의 根本原因이 豐凶과 같은 自然條件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慢性的 原因 역시 地代의 固着性和 같은 內在的 要因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것, 地代의 可變性을 생각한 다 하더라도(사실, 地代의 可變性은 小農制下에서 흔히 있을 수 있다)그것은 外國의 支配力에 의하여 慢性化하는 것은 오히려 常例라는 것.

(viii) 바로 위의 두가지 項目(v와 vi)과도 관련하여 農業恐慌은 獨占資本主義의 段階에 있어서 보다 많이 보게되는 特性임을 알 수 있다는 것, 이 때에 農業恐慌은 그 慢性的 樣相을 뚜렷이 나타낼 뿐이 아니라, 工業恐慌의 轉嫁와 더불어 急性的 狀況으로 展開되는 條件을 發現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

農業恐慌에 대한 우리의 理解가 대체로 위와 같은 것이라 할진대 結論的으로 우리는 開港期의 韓國農村社會에 恐慌의 發生을 豫想하기에 어렵지 않다. 土着經濟의 封建的 被支配性에도 불구하고, 農業恐慌의 發生을 否認할만한 斷定的 條件은 위의 項目에 비추어 당장 지적될 수 없는 속성이다. 그보다 오히려 當時에 軍國主義에 힘 입은 강한 外來資本의 侵入活動을 想起할 때 우리는 農業恐慌의 必然性을 否認할 수 없게된다. 그것은 실로 단순한 資本主義의 侵入이 아니라 軍國主義의 背景을 갖는「暴力的」威勢의 侵入으로 말미암아 封建體制를 넘은 他律的 近代化는 거기에 實質的으로 꾸며졌던 까닭이다.

모름지기 우리는 資本主義나 獨占資本主義의 支配條件을 土着經濟의 近代機構의 發展에서만 구해 볼 수 없다. 비록 土着經濟가 아직 歷史的 生産樣式을 그대로 存續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도 優勢한 資本制의 支配體制下에 놓여 있는 限, 「인플레이션」이나 農業恐慌은

## 10 經濟學研究

거침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도처에 實證된 사실이다. 이 점의 투철한 認識 없이 理論이 封建의 沈滯性이나 前期의 自然觀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문제의 올바른 解決은 도저히 지어질 수 없다. 事態는 被支配의 樣態 그것에 本質이 있는 것이 아니라 支配條件의 發展性이 흔히 封建의 機構의 形式을 內面的으로 變質(近代化)시키는 運動에서 전개함을 볼 수 있는 까닭이다.

그 뿐인가, 封建의 被支配性 역시 그저 近代的 農業恐慌을 制約하는데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後者 그것을 더욱 深化하는 動因이 될 수도 있다. 이른바 「세레」現象에 허덕이고 있는 生産農民을 생각하되 그들이 만약 苛酷한 封建의 小作料를 強要당하는 立場에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의 深化를 가져오는 機構의 動態일 뿐이다. 그럼에 있어서도 이 때에 문제의 主導力이 外來的 支配條件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封建의 高率小作料나 그 밖에 凶作과 같은 內在的 要因이 당장 문제의 本性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점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따라서 開港期의 農村不況을 모를지기 封建의 支配條件이나 凶作과 같은 自然的 制約性에만 돌리는 一部の 見解는 거듭 본 바와 같이 事態의 動因에 관하여 적어도 主從을 가리지 못한 論理的 過誤이다.

지금 韓半島의 歷史的 農業恐慌이 內外資本主義史의 全體를 통하여 그동안 각별한 特徵의 局面이 무엇이나 하면 그것은 近代的 被支配性에 더하여 바로 封建의 動因이 스스로의 加勢의 條件으로 機能한 점이라 하여서 무방하다. 이 점, 後者は 前者에 대하여 獨立的 制約性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단순한 資本制의 市場經濟를 넘는 深刻性을 前者에 附與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 開港期의 農業恐慌에서 그 特徵이 가장 뚜렷함을 볼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그것은 封建體制의 危機를 포함한 近代的 危機를 造成함에 한걸음 큰 起動力을 農業恐慌에 附與하고 있다는 論理的 示唆이다.

물론 따져보면 封建의 支配條件 뿐이 아니라 凶作과 같은 自然條件 역시 農業恐慌과 無關하다 할 수는 없다. 後者가 직접적으로 農業恐慌의 本質의 動因은 될 수 없으나 農業恐慌(또는 인플레이션)을 深化하는 動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自然經濟가 支配의인 後進社會에 있어서 그것이 한층 猛威를 발휘하는 外的要素임에 또한 틀림이 없다. 다만 우리는 끝까지 凶作 그것을 農業恐慌의 本質의 支配要因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그러나 開港期 이후 우리는 韓國資本主義史上 農業恐慌의 보다 적극적이며 보편적 의미를 갖는 協同的 動因을 말한다면 몇번 본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을 들 수 밖에 없다. 兩者는 일견 對蹠의인 가운데 흔히 小農生產을 共同的 힘으로써 抑壓하고 相互 補完의으로 破壞하는 것이며, 自然經濟의 舊設을 뚫고, 그들 自身을 貫徹하는 것이 뚜렷한 까닭이다. 따라서 이들의 發展의 運動은 필경 全體社會의 危機를 助成함에 크게 寄與한다. 그것의 極點이 바로 新時代를 區劃하는 動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韓國資本主義史의 역연히 實證된 局面이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의 劃期性을 가져온 特例로서 東學革命을 살펴보자, 發動의 直接的 導火線이 封建苛歛에 대한 反抗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선 「斥邪排外」의 意識이 보다 큰 支柱를 이루고 있다는 점, 주지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이는 封建의 危機와 近代的 危機의 重疊의 局面이며, 바로 「인플레이션」과 農業恐慌에 直結된 事態임에 틀림이 없다. 여기에 실로 東學革命의 本性은 비로소 뚜렷함을 보여주는 관계이다.

아니나 다를가, 東學軍의 榜目에는 數多한 內政穢弊의 是正을 促求하는 文句 이외에 「倭軍逐斥」의 黨目이 분명히 거어있고, 「他國潛商之峻價買米也」라든가 「各浦口私買米嚴禁事」

의 絶叫 또한 크게 주목되는 문제의 條件이다.

사실이 東學蜂起의 直前 數年の 經濟動態로 말하면 激烈한 「인플레이션」과 農業恐慌의 重疊의 過程을 우리에게 역연히 전해주고 있다. 즉

「1890年 및 1891年은 한국에 비상한 豐作을 보고, 日本에 凶慌을 봄으로써 韓國貿易額이 約倍의 増加를 보였으나 다음 2年에 있어서는 이 사정은 變化하였다. 1892年 및 1893年에는 風雨때문에 한국이 凶作이었고, 특히 地味肥沃한 南地部方에 被害가 많았기 때문에 政府는 1892年 11월에 防穀令을 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 때에 한편 日本에서는 豐作이어서 韓產의 需要를 減하고 云云」<sup>1)</sup>

그렇다면 위의 兩年에 米穀輸出의 激減을 보인 점과 특히 1893年의 防穀事態는 불 만하다. 이는 輸出入 貿易의 全般의 減退(前掲表)와 더불어 景氣의 不況의 局面을 如實히 나타내는 까닭이다. 따라서 事態는 곧 土着生農民의 經濟面에 대하여 恐慌의 壓力으로서 機能할 것이 분명하나, 다만 이때에 市場米價의 動態만을 본다면 그가 뚜렷하진 않은 가운데 貨幣的 動態에 비추어 「인플레이션」의 進行은 틀림없는 氣勢이다. 그 밖에 따져 보면 우리는 輸出米價와 輸入織物價格間의 「세레」現象을 東學革命直前 數年の 動態로서 찾아볼 수 있다. 이도 적지않게 우리에게 興味를 자아내는 資料의 하나이다(다음表 참조).

지금 東學革命을 前後한 農業恐慌의 구체적 內容을 實證의 으로 찾아본다면 限이 없다. 적어도 穀價의 暴주에 그쳐있지 않은 문제이다. 어쨌든 그것이 傳來的 封建農業의 停滯性과 뚜렷이 구별하기에 어려운 가운데 東學亂을 맞았다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固有한 農業恐慌은 加重的 條件을 附加한 셈이다.

그러나 優勢한 外來資本의 侵入을 보아 온 開港期의 農業社會에 恐慌의 發生을 보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점은 구미에 固有한 近代의 恐慌의 가장 典型적 動因(過剩生産)만을 들어본다 하더라도 일찌기 다음과 같은 文面은 역시 우리에게 중요하다. 즉

「開港前에는 住民은 國內에 많은 需要가 없었으므로 自家用以上の 農產物을 產出할 필요가 없을 뿐이 아니라, 만약 剩餘가 있으면 흔히 官吏의 强求를 빚어낼 媒介物이 될 뿐이었다……그러나 開港과 同時에 外國人의 來邦함에 이르러 舟行의 便이 있는 河川 및 海岸附近의 住民은 비로소 剩餘의 販路를 發見함으로써 耕作量을 増加함에 이르렀다. 이에 연유하여 얻어진 收益은 韓人으로 하여금 輸出의 목적으로써 耕作함에 有利함을 깨닫게 함에 이르렀다」<sup>2)</sup>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日本人은 더욱 더욱 韓民의 農業을 獎勵할 목적으로써 耕作着手前에 스스로 農業地方을 巡廻하고, 또는 代理人인 韓人을 巡廻시켜 보통 收穫의 半을 分得할 條件으로써 農民에 資金을 貸與하고, 가을에 이르러 다시 契約地方을 巡廻하여 農產收穫을 分得하여 이를 貿易港에 送致한 바, 그가 貸與한 바는 米穀의 賣買市勢보다는 상당히 低廉한 것이므로 豐年에 있어서는 막대한 利益을 보고, 凶年에 있어서는도 損失을 본 바 없다」<sup>3)</sup>.」  
따라서 不等價交換의 現象은 역연한 것이나, 더구나 만약 이 때에 어떠한 理由에 의하여 급격한 防穀令에 接하게 될 때, 그 밖에 穀價低落의 負擔轉嫁를 보게 될 때 문제는 크다. 이 점은 東學革命前에도 볼 수 있었던 過程임에 틀림이 없으나, 더욱 그 후 곧 「日清戰爭의 때에 地稅의 穀納制度가 廢止되고, 金納을 취하였기 때문에 종래 京城에

1) 「韓國誌」, 139面

2) 「韓國誌」, 141~142面

3) 「韓國誌」, 142面

## 開港期 米穀輸出・綿織物輸入動態(東學革命前後)

(米綿織物)

| 年    | 次 | 輸 出 量     | [*]輸出額    | 單 價   | 輸 入 量   | 輸 入 額     | 單 價    |
|------|---|-----------|-----------|-------|---------|-----------|--------|
|      |   | 擔         | 弗         | 弗     | 弗       | 弗         | 弗      |
| 1886 |   | 8,454     | 12,193    | 1.442 | 389,178 | 1,107,670 | 2.846  |
| 87   |   | 67,589    | 90,071    | 1.332 | 492,099 | 1,440,282 | 2.926* |
| 88   |   | 16,065    | 21,810    | 1.357 | 442,786 | 1,297,187 | 2.929  |
| 89   |   | 34,527    | 77,578    | 2.246 | 393,488 | 1,175,097 | 2.986  |
| 90   |   | 874,665   | 2,037,868 | 2.329 | 566,765 | 1,688,539 | 2.979  |
| ?    |   | 928,010   | 1,820,319 | 1.961 | 641,055 | 1,892,826 | 2.952* |
| 92   |   | 487,601   | 998,519   | 2.047 | 464,067 | 1,357,250 | 2.924* |
| 93   |   | 170,077   | 367,165   | 2.158 | 387,903 | 1,140,608 | 2.940* |
| 94   |   | 376,239   | 979,292   | 2.602 | 448,570 | 1,586,411 | 3.536  |
| 95   |   | 305,196   | 739,870   | 2.424 | 678,589 | 2,482,416 | 3.658  |
| 96   |   | 906,585   | 2,509,343 | 2.767 | 428,911 | 1,567,967 | 3.655  |
| 97   |   | 1,738,331 | 5,556,764 | 3.196 | 573,829 | 2,121,671 | 3.697  |

(價格: 全上) (單價는 國內市勢를 反映한 것)

## 單價比較動態

|      | [米]   | [綿]   |
|------|-------|-------|
| 1890 | 100.0 | 100.0 |
| 1891 | 84.2  | 99.1  |
| 1892 | 87.9  | 98.2  |
| 1893 | 92.7  | 98.7  |
| 1894 | 111.7 | 118.7 |

(1890年=100, 「세레」相)

送致하여 官庫에 들어간 막대한 米穀이 現今은 剩餘로 되어 거의 輸出함에 이르렀다」<sup>1)</sup>는 실정은 바로 土着農業恐慌의 蓋然性을 強化하는 動向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밖에 土着農民의 土地喪失 小作農의 增勢에서 農業恐慌은 또한 분명히 立證되거니와 좀더 구체적으로 이를 지적할 수 없지 않다. 예컨대 棉花의 生産에 관하여 일찌기 東學亂(1894年)에 앞서서 뚜렷한 恐慌에 接한 셈이다. 즉

「1890년에는 非常한 豐年이어서 輸出額이 6,794捆, 27,541弗에 달하였던 것이 近年은 이 輸出이 점차 減少되어서 1897년에는 아주 斷絶되어 버렸다. 이 점, 外國의 綿製品이 속속 輸入됨으로써 韓國의 棉作이 衰退에 歸한 까닭이다」<sup>2)</sup>

물론 開港期 農業恐慌이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危機의 局面은 결코 東學革命에 그쳐 있지 않다. 그에 앞서서 일찌기 發生한 壬午軍亂(1882年)만 보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軍卒의 反抗에 그쳐 있지 않은 近代史의 大衆運動의 하나이다. 하물며 東學革命以後의 事態를 살펴볼 때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激化와 併行된 農業恐慌의 深化過程을 土着社會의 危機와 더불어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義兵運動의 背景 역시 그것의 類型이다.

그 밖에 勞動運動의 體系의 攄頭는 아직 時機尙早이었으나 韓末에 그것의 存在를 전적으로 否認할 도리는 없다. 그 역시 다소의 泡沫의 展開를 보인 가운데 農業恐慌과 더불어

1) 「韓國誌」, 142面

2) 「韓國誌」, 148面

連結된 機能者였음은 물론이다.<sup>1)</sup>

## 5. 結 論

우리는 1876年の 開港을 당장 韓國資本主義成立의 起點으로 보지 않지만 적어도 近代的 「인플레이션」과 農業恐慌의 條件이 成立된 起點으로 보고 있다. 비록 土着經濟의 封建的 沈滯性이 持續된 바 있다 하더라도 日本軍國主義의 背景으로 몰아온 「世界市場의 暴風雨」는 이 땅에 「인플레이션」과 農業恐慌을 誘發시킬 수 있었고, 사실 그것만이 近代的 「인플레이션」과 農業恐慌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開港의 劃期性은 일단 뚜렷한 局面이다.

開港期 「인플레이션」은 흔히 전통적 見解에 있어서 財政의 窮乏이 아니면 國內의 貨幣 濫發에 그 原因을 두고 있는 것도 같으나 실은 外來資本의 排他的 活動에 보다 源泉의 根據를 두고 있다. 특히 日本資本에 의한 貨穀이나 韓錢賣買, 日本貨幣의 國內通用, 淸日兩國의 産金運動 등이 일찍이 눈에 띄는 문제의 支配의 要因이다.

그런데 開港期以後 이 땅의 「인플레이션」은 즉 만드시 獨立的으로 그 威勢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農業恐慌과 相互補完的으로 連結되고, 協動하였다는 점에서 世界史的 特性을 보여준다. 그것은 小農이 支配的인 後進 資本主義國家에 있어서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의 局面이며, 韓末의 開港期는 바로 이 점을 實證하는 좋은 契機이다.

사실, 外來資本의 強壓의 浸透에 의한 開港期의 「인플레이션」을 보는 限, 우리는 당연히 農業恐慌을 豫想하지 않을 수 없다. 農業恐慌이 獨占資本主義의 産物인 것인지 産業資本主義以前의 段階에서도 發生할 수 있는 것인지에 論議의 餘地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強力한 日本軍國主義의 侵入下에 있어서 農業恐慌은 封建性만을 지속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럼으로써 韓半島의 農業恐慌은 오히려 日本에 앞서서 일어날 수 있었다고도 보아지고, 따라서 工業恐慌과 獨立的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實證的으로 確認된다. 그것은 두 말 할 것 없이 半植民地下의 小農恐慌이란 固有한 성격에 연유한 必然的 歸結이다.

요컨대 우리는 開港期의 農業恐慌이 慢性的인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隨半하였고, 그 뿐이 아니라 封建的 支配條件과 併行하여 新時代를 區劃할만한 全體의 危機를 助成한 사실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볼 때 그것은 壬午軍亂이나 當五錢 「인플레이션」이나 東學革命이나 自銅貨 「인플레이션」을 거쳐서 內的으로 擴大再生産하여 드디어 李朝封建國家의 運命을 決定지웠다고 볼 수 있다. 그간에 義兵運動이나 近代的 勞動運動의 泡沫을 아울러 찾아볼 수 또한 없지 않거니와 다만 그 가운데 가장 普遍的이며, 基底的인 要因으로서 우리는 農業恐慌을 본다는 것을 각별히 強調한다. 여기에 비로소 開港의 歷史的 意味는 浮刻되고 그 후의 韓國資本主義史 또한 現實的 意味를 뚜렷이 갖는 까닭이다.

1) 우리는 여기에 土着農村을 基盤으로 한 각종의 獨立運動이나 義兵運動등을 생각한다.